

# 퓨전 경영과 접목하라



**근** 래에 융합을 의미하는 퓨전(Fusion)에 대한 관심이 다각도로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디지털을 매개로 한 가전, IT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트렌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실시간 방송을 수신하는 위성 DMB폰이나 복합기, 인터넷 냉장고, DVD 콤비, 텔레텍스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재즈 음악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던 용어가 점차 그 의미망을 넓혀가고 있다.

## 등 처 야 산 다 , 컨 버 전 스 레 볼 루 셴

이런 바람은 비단 IT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인 변화의 흐름이다. 팜파라, 퓨전 레스토랑 등 결국 컨버전스란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결합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술 분야인 퓨전 테크놀로지의 잠재력도 놀랍다. 미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IT(정보통신), BT(생물학), NT(나노기술), CT(콘텐츠), ET(환경) 등과 같은 5T간에는 이미 퓨전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생물학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바이오인포메틱스(Bioinformatics)는 생명 현상에 나오는 다양한 생물 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부가가치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퓨전 경영을 통해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이 결합된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명칭의 상품이 개발되어 은행업과 보험업이 통합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렇듯 퓨전경영이란 제품, 기술,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의 제반 활동들이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가는 일련의 경영 혁신 활동으로 압축될 수 있다.

## 퓨 전 경 영 의 비 전

일단 이와 같은 퓨전 경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퓨전의 물살을 타는 핵심은 크게 기업의 '내부 경쟁력 강화'와 '외부 기회 확보'라는 두 축을 근간으로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상호 보완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방카슈랑스가 이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퓨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하고, 기존의 업무 기반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퓨전은 대단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한 가지 기술 혹은 제품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제품과 기술의 수명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고객의 요구는 날이 복잡다단해지기 때문이다. 퓨전 경영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외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의 전략이다.

1+1의 힘으로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각광을 받는 컨셉트인 '브릿지(Bridge)' 상품이 좋은 예다.

브릿지 상품이란 기존의 기술과 새로운 신기술 제품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DVD 콤비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DVD라는 신기술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기존 VCR의 범용성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제대로 구사된 것. 아울러 미래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의 시장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개척의 의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미래 시장의 선점으로 자사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까지 동시에 잡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다만 이런 일련의 청사진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조합이어서 곤란하다. 그간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되던 가치와 제품, 서비스 등에서 어느 하나를 부각하기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릴 수 있는 해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